

개개의 특성이 빛나는 실 (10)

스기노의 BD사 “산코”, 변함없이 생산

오사카후(大阪府) 센난시(泉南市)에 자리 잡고 있는 중소 기업 스기노사(杉野社)는 BD 공기 정방기(空氣精紡機) 6대 1,200rotor를 가동하면서 면 50%, 스프(SF) 50% 혼방사 “산코(杉光)”만을 월간 300콘(梱) 생산하고 있다. 원래 “산코”는 순면사였는데, 파키스탄으로부터 값싼 수입사가 들어오자, 더 이상의 가격 경쟁이 어려워져서 15년 전에 면 스프 혼방사로 바꾸게 되었다.

“스기노” 사장은 “머리가 희게 되도록 계속해 온 만큼, 방적은 천직이다”라고 말하고 있다. “산코”의 특징은 “값은 싸지만 품질만은 좋다”라고 자랑하며, 판매 가격은 곤당 36,000~37,000엔으로 타사의 혼방사보다도 수천엔 싸지만, 무엇보다도 품질이 안정되어 있는 것이 매력이다. 그럴수록 생산 시설에도 여러 가지 개량을 해오고 있으며, 특히 모프(mop : 자루가 긴 걸레) 소재로서 수요가 많다.

“스기노”의 생산에 관한 기본 데이터를 보면 면 50%, 스프 50%의 혼방률이 기본이 되는 소재로 8수, 10수, 12수가 주요 방적 변수이며, 이들 실의 용도는 모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팬시 얀(fancy yarn : 장식사), 작업용 장갑, 범포, 커튼 등에 사용되고 있다.

과거에는 24시간 풀가동하던 방적 시설도 지금은 8시간만 조업하고 있다. 그만치 중국 등 개발 도상국의 섬유품이 파도와 같이 이 지방의 방적 기업에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스기노의 제품을 신뢰하며 변함없이 거래해

주는 고객도 많았다. “살아있는 한 방적을 계속한다”는 “스기노” 사장은 면, 스프 혼방사에 거는 집념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다. ♣